



이것이 제자훈련이다!



푸른초장교회 임종구 목사는 “젊은 너희들이 광야로 나가 보라. 개척에 뛰어들어서 역사를 만들어 보라”는 교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아 1996년 6월 20일 철없던 전도사 시절, 신혼방에서 고등학생 두 명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했다. 그 고등학생 두 명은 처제와 처제의 친구였기 때문에, 가족을 제외하고는 고등학생 한 명을 앉혀놓고 개척한 것이다. 그나마 그 학생도 한 달이 지나고 나서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게 됐다.

주소가 없었던 교회

가정에서 첫 예배를 드린 지 한 달 만인 1996년 7월 20일, 건물을 임대해 ‘푸른초장과 실만한 물가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3년 동안 출석 성도 수가 열 명이 안됐다. 첫 아이를 등에 업은 사모와 단 둘이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았는데, 열을 올려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아이가 화장실 갈 일이 생겨 화장실로 가버리면, “설교를 계속해야 할지 기다렸다가 돌아오면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때가 굉장히

많았다”고 한다. 개척 후 1년 반 동안 반주 없이 찬양을 하다 보니 임 목사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가 열리기도 했다.

1998년, 대한민국에 IMF라는 불청객이 찾아오면서 임 목사가 목회하던 작은 상가 교회는 어린이집으로 바뀌게 됐고, 십자가도 간판도 내려야만 했다. 강대상과 장의자는 모두 다 옥상에 올려놓고, ‘주암산 기도원’ 떡갈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렸다. 교회와 임 목사의 미래는 암울했다.

교회 주보에 교회 주소조차 기록할 수 없었다. ‘기도원 떡갈나무 아래’라고 적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그러나 그보다 ‘영적인 주소’가 없는 것이 더 가슴 아픈 현실이었다. 당시 임 목사는 기도원에 가면 감을 따서 꽃감을 만들고, 개울가에서 가재를 잡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임계점에 도달하다

설상가상이라고 했던가? 당시 임 목사가 교회 건물 옥상에 가건물로 지은 사택은 1999년 항공사진에 촬영된다는 이유



로 철거됐다. 교회 개척이 어려워도 일상적인 삶에 타격이 없으면 어느 정도는 이겨낼 수 있다. 그러나 예배 처소를 완전히 잃어버려 떡갈나무 아래서 예배드린다든지, 사택을 잃어버린다든지 하면 목회자로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임 목사는 급하게 빈집을 찾아 대구 인근의 시골마을을 누볐지만, 그나마도 찾지 못한 채 하루해가 넘어가버렸다.

“최고장에 고지된 철거 시한 마지막 날 밤에 옥상 가건물 사택에 누웠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날 밤에 성경말씀을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날 사모는 친절으로, 임 목사는 친구 목사의 집으로 흩어졌다. 교회 개척을 실패하고 그만둬야 할 임계점에 와버린 것이다.

그렇게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임 목사는 우연히 『평신도를 깨운다』를 읽고, 1999년 3월에 개최된 40기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에 참여하게 된다.

한 영혼에 미쳐야 했는데...

CAI세미나 첫날 저녁, 옥한흠 목사의 ‘광인론’을 들으면서 임 목사는 많이 울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처량한 형편이기도 했고, 목회 성공병과 허상, 허수의 삼허현상을 이야기할 때 스스로 많이 찢리고 아팠기 때문이다.

한 영혼에 미쳐야 하는데, 잘못된 것에 미쳐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젊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성목회자와 하나도 다를 바 없었고, 옥한흠 목사의 이야기가 다 자신의 이야기였다. 그 말씀에서 그는 도망갈 곳이 없었다.

“그 밤 제게는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목회생활 가운데 변화가 있지 않으면 끝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많이 기도했습니다.”

문제는 ‘떡갈나무’나 ‘반주자 없는 것’, ‘사택 없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자신이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었다. 광인론을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자, 자신이 섬기던 성도

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열 명이라는 숫자도 자신에게는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CAL세미나를 마치고 나서도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임 목사가 바뀌었다. 그러자 그렇게 작아 보이던 성도들이 자신에게 너무 과분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임 목사는 세미나를 마친 다음 곧바로 제자훈련에 돌입했다.

20-20 클럽

임 목사는 함께 CAL세미나에 참여했던 세 명의 목회자들과 누가 먼저 '20-20클럽'에 가입하는지 보자고 약속을 했다. 주일 낮 예배에 20명이 출석하고, 주일학교에 20명이 출석하는 것을 20-20클럽이라고 정한 것이다.

세미나를 마치고 내려와 곧바로 남제자반 4명, 여제자반 3명을 모집하고, 1기 제자반을 시작했다. 거기에 생명을 걸었다. 형제들이 저녁 9시에 퇴근하면 새벽 2~3시까지 훈련했다. 한 과 훈련을 끝내고 돌아가기 전에 훈련생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워낙 마음이 절박하니까 기도가 통곡으로 변하곤 했다. 이렇게 훈련한 1기 남제자반 중에 한 명은 서울로 직장이 옮겨져 교회를 떠나게 됐고, 나머지 세 명은 지금 푸른초장교회의 시무장로가 됐다.

교회 부흥의 착각, 암초에 부딪히다

시간은 흘러 눈이 오고, 갈 데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자, 제자훈련을 받던 1기 남자 훈련생들이 “떡갈나무 아래에서 계속 예배 드릴거냐?”고 했다.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4천 세대 아파트가 입주하는 계명대 정문 앞으로 옮겼다. 임 목사 가족을 포함해서 네 쌍 모두 자기 집이 없는 상황에서 2억 2천만 원을 마련해 2000년 1월 30일에 입주했다. 상가에 교회가 들어

오는 것을 반대할까봐 밤 12시에 이사를 했다. 이후에 아파트에 4천 세대가 이사를 시작했는데, 당장 부흥할 것 같은 꿈에 부풀었다.

그러나 입주한 사람들이 푸른초장교회에 오지 않고, 인근의 다른 상가 교회로 가는 것이다. 그 두 교회는 5월이 지나고 나니까 100명을 넘어서기 시작했지만, 푸른초장교회는 변함이 없었다.

IMF 이후에 은행금리가 올라 한 달에 적자가 300만원이었다. 현금 총액은 200만원이었는데, 은행이자가 500만원이었다. 7~8월이 될 때까지 새벽기도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임 목사는 그 당시 죽고 싶었다고 한다. 4월에는 한 달 만에 체중이 10kg이나 빠졌다.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이 아닌 다른 쪽으로 운전해가기도 했다. 그만큼 낮이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임 목사는 제자훈련을 포기하지 않았다.

가을의 전설

임 목사는 제자훈련뿐 아니라 선교에도 선제적으로 헌신했다. 푸른초장교회는 30명 모일때 단기선교사를 파송했고, 70명 모일 때 단독 선교사가정을 파송했다. 그 당시 담임목사가 70만원의 생활비를 받을 때, 파송 선교사에게 월 300만원을 지원했다.

임 목사와 푸른초장교회는 2003년 가을을 잊지 못한다. 푸른초장교회에서는 “가을의 전설”이라고 말하는 기간이다. 2003년 부활절에 단독 선교사가정을 파송하고, 그해 가을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것이다. 늦게 오면 예배실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흥이 있었다. 교회가 왜 이 땅에 지어졌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붙들었을 때 나타난 열매였다.

푸른초장교회가 설립 10주년이 되었을 때에는 200여 명 정도의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가 돼 있었다. 임 목사와 푸른초장교회는 “10주년 기념 개척 교회(인동 제자교회)”를 세우기로 결정했다.

임 목사는 “절대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말라”고 성도들을 독려하면서, 1년 동안 10의 2조, 10의 3조를 작성하게 해, 안동에 교회건물을 지어서 개척했다. 본 교회는 여전히 상가에 있으면서도 5억을 현금해 안동에 예배당을 지어서 개척을 해 준 것이다.



임종구 목사

대신대학교와 총신대 일반대학원에서 교회사를 전공하고, 현재 박사과정 중에 있다. 대구 푸른초장교회를 개척해 제자훈련 목회철학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전국 CAL-NET 시무총장으로 섬기고 있다.



광인론을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자, 자신이 섬기던 성도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열 명이라는 숫자도 자신에게는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교회는 내가 세운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놀라웠다. 안동 제자교회를 지어 입당예배를 드리고 나자, 현재 푸른초장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부지가 급매물로 나왔다. 사실 그 땅은 기괴한 땅이었다. 당산나무, 재실, 무당이 살던 집이 포함된 땅인데, 무당이 딸을 시집보내야 한다며 급매물로 내놓은 것이었다. 그런데 그 집 하나만으로는 안 됐다. 당산나무도 사서 베어야 하고, 재실도 무너뜨려야 했다. 뒤쪽은 마을 서당 땅이었는데, 아홉 개의 문중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이었다.

임 목사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나 아니냐?’ ‘지금이나 아니냐?’라는 세 가지 기준을 갖고 기도했다. 당시 안동제자교회를 개척하면서 5억원의 현금을 헌당했기 때문에 빚도 있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기도 중에 바로 지금이라는 강한 확신이 왔다고 한다.

임 목사는 사실 상가에 있으면서 행복했다고 한다. 힘들었지만 낭만이 있었다. 그렇지만 결국 전체 성도들이 모여 회의를 한 후, 55억 빚을 지고 현재의 예배당에 입당을 하게 됐다.

부지를 매입하는 순간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서당 땅을 매입할 때, 문중 어른들이 잔금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젊은 목사를 믿고 땅문서를 교회에 먼저 줬다. 땅문서로 담보대출을 받고도 땅값에서 7천만 원이 모자랐다. 그런데 잔금 치르는 날 아침에 교회도 다니지 않는 은행 대출담당 과장이 전화가 와서 7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빌려 줬다. 당시 임 목사는 머리 끝이 쭈뼛 서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 교회는 내가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는 듯했다.

그 결과 푸른초장교회는 900평의 부지를 구입하게 됐고, 연건평 800평, 확장하면 1,200평까지 되는 건물을 주셨다.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건축위원회 총괄을 맡았던 존경받던 안수집사가 땅을 매입하는 중에 돌연사로 죽었고, 당시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 “무당 집 사서 그렇다”, “당산나무 베어서 그렇다” 등의 소문이 무성했다. 완전히 예배당 건축이 멈춰버렸고 아무도 건축에 대해 말을 안했다.

그런데 제자훈련 받은 한 안수 집사가 임 목사를 찾아와서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명의 생명이 필요하다면 제가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건축이 다시 시작됐고, 입당하던 날 건축총괄을 맡았던 집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건축 중에 저의 신상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사의 회장님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해 달라고 서을 본사로 올라오라고, 강남에 사택도 주고, 직급을 두 단계 높여주고, 연봉도 배를 주겠다고면서 스카웃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 번이나 찾아왔는데 예배당 짓겠다고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지 않았습니다.”

입당 후 공동의회를 했는데 313표 만장일치로 그분이 시무장로에 피택됐다. 그분은 떡갈나무 아래에서 제자훈련을 한 분이였다. 임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제자반 한 반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제자반 한 반이 십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일을 이뤄 줍니다.”

필요 이상으로 희생하라

임 목사의 목회여정에서 언제나 제자훈련은 가장 힘든 순간에 빛과 소망이 됐다. ‘한 사람’에 대해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우습게 아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 줄의 짧은 철학적 질문, “왜 예수님은 제자훈련을 하셨는가?”의 고민은 수많은 실천신학적, 교회성장학적인 많은 책들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임 목사는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제자훈련 할 때 처음부터 “저들을 위해서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훈련하라고 권면한다.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피폐해 있는지 모른다. 옳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따라오리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참 좋군요! 그러나 당신과 함께하고 싶지는 않군요”라는 반응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다. 목회자는 이것을 잘 이해하고, 이런 성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낮아질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사실 성도들도 목회자가 자신들을 위해 필요 이상의 희생을 한다는 것을 안다. 목회자가 시간과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줄 때, 리더십이 생기는 것이다. 제자훈련 하려면 다른 목회자들이 당연하게 가지려고 하는 것,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권리까지도 제자 삼기 위해서는 기꺼이 내려놓을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임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제자반 한 반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제자반 한 반이 십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일을 이뤄 줍니다.”

교회 건축을 시작하면서 임 목사는 아파트를 팔고 원룸으로 들어갔다. 교회 짓고 나서 재정이 많이 어려워져 전도사들의 등록금이 2학기, 3학기 밀리는 상황이 됐다. 그때 임 목사는 자신의 자가용을 팔아 전도사들의 등록금을 갚아줬다. 그때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었는데, 부교역자들의 어려움을 보며, 마음이 많이 불편했다고 한다. 제자훈련 지도자가 모범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풍을 맞는다.

진액을 쏟아라

평신도 훈련 입학예배를 드리고 나면, 임 목사는 첫 훈련시간 시작 전에 직접 장을 보러간다. 깨끗하고 좋은 필통, 볼펜, 지우개 등 훈련에 필요한 것들을 정성을 다해 준비한다. 머그잔도 따로 구입해서 차를 마시면서 제자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준다. 이렇게 첫 훈련 시간에 예쁘게 포장해서 주면 훈련생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는다. 교재 정도만 주리라고 생각했는데 손수 장을 봐서 예쁜 것들, 동네 문방구에서 살 수 없는 것들, 고급스러운 것들을 사서 하나하나 라벨을 붙여서 선물로 주기 때문이다. 특히 숙제봉투, 바인더를 제작해서 주면, 감동이 크다.

출장을 가게 될 경우에는 훈련생들에게 그림엽서를 쓴다. 얼마나 훈련생을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임 목사의 그림엽서를 받아본 사람들은 “30여년 교회 다녔는데, 목사님께 그림엽서 받아본 것은 처음입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한다.

이렇게 작은 것 같지만, 한 사람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배려가 이렇게 모여야 한다. 오히려 별것 아닌 것 같은 사소한 보이는, 어쩌면 여 전도사님이나 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담임목사가 정성을 다해 하는 것이 감동을 주고 변화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된다.

임 목사는 해발 5500미터,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우체국이 있는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에서도 산소결핍을 느끼면서 사랑하는 제자반을 위해서 그림엽서를 썼다. 중국어와 티벳어가 동시에 들어가 있고, 베이스 캠프 낙인이 찍힌 엽서가 배달됐을 때, 어떤 집사님은 그것을 액자로 만들어서 보관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첫날 훈련은 담임목사 사택에서 한다. 정성을 다해 식사를 준비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다. 감동을 주는 작은 마

음과 행동이 모여지면, “내가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훈련생들과 모든 것을 함께하라

남자 훈련반은 제주도에 2번씩 2박 3일 엠터를 가기도 한다. 하루 종일 바다 낚시도 나간다. 열심히 라면 끓여 주면서 낚시하다 보면, 군대 이야기도 나오고, 더 깊은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여름에는

남자들을 데리고 천리 행군을 한다. 모든 훈련생들은 남녀 구분 없이 테니스 레슨도 받게 한다. 반드시 부부가 함께 테니스를 배우게 하고, 동호인 대회에도 다 같이 나간다.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는 1박 수련회에서 서로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의 간부이면서, 5~6가지 악기를 잘 다루며, 노래도 잘하고, 영어실력도 탁월하며, 생긴 것도 완전히 귀공자 같은 형제가 있었는데, 모두가 제자반 들어오기 전만 해도 “부잣집 자식이었나 보다”하고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1박 수련회 첫날 저녁에 새벽 4~5시까지 삶을 나누며 이야기하는 중에 자신이 고아원 출신이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다. 악기를 많이 다루게 된 것은 고아원에서 악기를 다루지 못하면 맞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배웠고, 열심히 공부한 이유도 고아원에서 나가기 위해서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

훈련생을 한 명, 한 명 세심하게 이해할 때 비로소 제자훈련이 된다. 그들의 삶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가르치는 것은 지식을 계속 강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제자훈련은 한 번 만나서 30분 만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자 제자반의 경우 7시 30분부터 시작하면 식사하고, 숙제 점검 하고, 삶을 나눈다. 암송을 한 후에는 설교 요약과 함께 나눈다. 큐티와 교재를 공부하고 독서교재를 나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사람을 위해서 7~8분씩 정말 세상에 그렇게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둘도 없



을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해준다. 그리고 나면 12시~1시가 훌쩍 넘어간다. 그야말로 진액을 쏟는 시간이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쌓이고 나면, 그들은 놀랍게 변화돼 간다. 어떤 형제들은 “청년부 때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라고 행복한 고백을 하기도 한다.

제자훈련은 전인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훈련자가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으면 제자훈련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 기껏 암송 몇 구절 외우게 하고, 큐티 좀 하게 하고, 교리 좀 가르치는 것으로는 그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없다.

좋은 팔로워가 되게 하라

훈련받는 성도들은 모두 리더가 돼야 하기 때문에 제자훈련에서는 절대 순종하게 한다. 반장, 총무, 회계를 세우면 그들의 리더십에 따르게 한다. 자신이 먼저 좋은 팔로워가 돼야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협조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제자훈련 받은 후에 목회에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철저히 복종하도록 가르친다.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기막힌 명문기수가 나올 때가 있다. 교회에서 제자훈련 하면, 모두 다 존경하는 기수가 있다. 한 기수 하나를 진액을 쏟아 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각오를 가지고 훈련해 나간다면, 몇 년이 못 돼서 교회 안에 신선한 분위기가 감돌고, 하나님께서 굉장한 기수로 탄생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사소해 보이는, 어쩌면 여 전도사님이나 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담임목사가 정성을 다해 하는 것이 감동을 주고 변화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된다.

이것이 바로 제자훈련이다

제자훈련은 목회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한다. 어느 기업의 기획실에서 근무하다가 제자훈련을 받을 무렵에 꿈을 꾸고, 사업을 하기 위해 사표 내고 독립한 집사님이 있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혼자 외롭게 기도하면서 지내는데, 그 무렵에 그가 몸담았던 회사의 회장이 찾아와서 복귀를 요청한 것이다. 그 회사에는 임원들도 많고, 부사장도 많았지만 자기 기업을 상장하는 중요한 일을 맡겨야 할 때,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집사님에게 다시 복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 회장이 임 목사를 만나서 식사하면서 “저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제 아들도 믿을 수 없지만, 배OO는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집사님은 그 회사에 다시 복귀했다. 회장이 부사장으로 올려주겠다고 제안했지만 회사에 입사 동기생들이 있기 때문

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다. 더 많은 연봉도 포기했다. 자신의 직급에 맞는 봉급만 받았다. 상장이 성공했고, 회사 규모는 10배가 늘어났다. 이것이 바로 제자훈련이다.

한번은 훈련 중에 형제 하나가 실직했다. 생활비가 없어서 아파트를 팔고, 교회 근처에서 다른 곳으로 멀리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 동기생들이 다 말리는 것이다. “직장 구할 때까지 조금더 기다려보자”고, “같이 기도하면서 직장 찾아보자”고 하는 것이다.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활할 수 없으니까 훈련생 10명이 모두 10만원씩 돈을 모아서 생활비를 도와주기도 했다. 이것이 바로 제자훈련이다.

지식만 전달하는 것은 제자훈련이 아니다. 물론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나온 성도도 양육을 제대로 받으면 지성미가 느껴진다. 그러나 제자훈련은 인격적인 성장도 가져와야 한다. 임 목사는 제자훈련을 처음 시작하면, 부부 간에 존대하는 것부터 철저히 가르친다. 그리고 생활숙제를 통해 설거지하는 것부터 가르친다.

5월 가정의 달에 형제들은 반드시 처가 방문을 하도록 한다. 연차를 내서 하룻밤을 처가에서 자고 오게 한다. 그날 저녁에 장을 봐서 앞치마 두르고 장인 장모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하게 하고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 올리게 한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장인 장모에게 ‘어머니 은혜’ 노래를 부른 후 장인 장모의 발을 씻어주게 한다. 이어서 그 발을 가슴에 안고 장인 장모를 위해서 기도하게 한다. 거기서 울음바다가 되는 것이다.

정서적으로도 성장해야 한다. 40대 자매들은 대부분 우울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기도는 잘하는데 통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엉망이다. 감정기복이 심하다.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다면 정서적인 변화가 와야 한다.

관계적 성장도 필요하다. 권사들은 개별적으로는 좋은데 모이면 싸운다. 야유회를 가더라도 김 권사가 가면 안 가겠다고 한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관계적으로 성장하게 해서 누가 가기 때문에 버스가 한 대 더 늘어나기도 해야 한다. 양육단계부터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게 해야 한다. 훈련을 통해 돈 쓰는 것

부터 가르쳐야 한다. 돈 때문에 벌벌 떨면, 나중에 장로 권사 됐을 때 목회를 힘들게 한다. 제주도 여행도 2~3일씩 휴가내서 다녀오도록 가르친다. 훈련생 때도 못했는데 나중에 안수집사, 장로 되면 가겠는가? 귀납적으로 불순종한다. 실제로 해보야 한다. 맛있는 것도 먹어보야 한다. 한라산 가기 위해서 장비도 갖춰 보야 한다. 훈련 중에 반드시 스키를 가르친다. 볼링장도 못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고 권면하면서 가르친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은 경제적 성장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쓸 수 있을 때 경제적으로도 성장한다. 현금도 구체적으로 가르친다. 훈련할 때 확실하게 안 해두면 설교 때 못 가르친다. 십일조 내는 정도로 추수감사헌금을 하라고 가르친다.

사회적으로도 성장하게 해야 한다. 그 사람이 소속된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제자반, 사역반에서 스타가 될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서 스타가 돼야 한다. 반짝 반짝 빛나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닌 현장이다. 사업이 정말 바쁘면 일 년간 순장 안식년을 주기도 한다. 매뉴얼만 따라하는 것을 제자훈련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제자훈련이 안되는 이유는 전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을 얻을 수 없으면 제자훈련은 실패하는 것이다. 지정의가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비전이 분명하면 액션이 분명해진다

비전이 분명하지 않아서 평신도들이 헌신하지 않는 것이다. 부산에 간다면 기차표를 구입하고 몸을 실어야 한다. 어정쩡해서는 안 된다. 든든한 목회의 하부구조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성도들도 눈치로 안다. 성도들을 이용하려고 감언이설로 현금 많이 내게 하고, 교회 사역에 있어 따르는 심복을 만들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런 것이다. 그것은 제자훈련으로도 충분하다. 제자훈련이라는 말이 필요 없다.

마지막으로 임 목사는 “‘들 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켜놓을 거야’라는 태도는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입니다. 지난 16년간의 제자훈련 목회를 통해 얻은 결론은 절대

로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말씀과 성령만이 사람을 변화시켜 놓는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게 됐습니다. 제자훈련 하는 동안 심하다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암송, 설교요약, 큐티, 성경읽기를 강조하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말씀 외에는 그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당부한다.

18년 역사의 푸른 초장교회는 이제 곧 2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푸른초장교회는 한국 초대교회의 선교적 근간이 됐던 교육선교(미션스쿨설립), 문화선교(기독교문화공간조성), 사회선교(기독교사회복지관건립)에 눈을 돌리려 한다. 이미 전국에서 열두 번째이자 대구지역에서는 최초로 전문영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푸른초장공공도서관은 2012년 7월 개관해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고 있다. 앞으로는 미션스쿨을 설립해 지역과 도시 전체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역동적인 교회로 서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권사들에게는 앞치마를, 안수집사들에게는 작업화를 임직 선물로 주며, 제자반 15기 수료생 219명과 사역반 9기 수료생 121명, 70명의 순장이 한 마음으로 섬기는 푸른초장교회의 오늘의 모습은 이 꿈과 비전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준다. 

〈박주성 목사〉

